

# 양현종 2200K·올리 완봉쇼...KIA '기록의 밤' 빛났다

**양현종, KBO 최초 대기록...현역 최다승 등 신기원 열어 올리, 구단 외인 10년만...평균자책점·다승 1위 활약도**

KIA타이거즈가 롯데아이언즈와의 경기에서 기록 전지를 받았다. '대투수' 양현종은 KBO리그 사상 첫 2200탈삼진 고지를 밟았고, '에이스' 애덤 올리는 구단 외인 10년 만의 완봉승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KIA는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앞서 24일 롯데에게 4-0 승리를 거뒀던 KIA는 2연승 달성과 함께 굵직한 기록 두 개를 동시에 수확했다.

주말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한 '통산 탈삼진 1위' 양현종은 1회초 상대 선두타자 한태양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전날까지 2199탈삼진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이로써 KBO리그 역대 첫 2200탈삼진 고

지를 점령했다.

양현종은 이어 레이즈스, 전준우, 유강남, 신윤후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통산 2204탈삼진으로 기록을 늘렸다.

2007년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양현종은 올 시즌 20시즌째를 맞은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대 최초 11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KIA 마운드를 책임졌다. 또 전날까지 총 547경기에서 187승(129패)을 수확해 은퇴한 송진우(210승)에 이어 통산 다승 2위이자 현역 최다승 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날 승리투수가 되면서 승리 기록은 188승으로 늘었다.

24일 경기에서는 올리가 완봉투를 선보

였다.

올리는 롯데와의 주말 1차전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9이닝 3피안타 2사사구 11탈삼진 무실점으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는 올 시즌 KBO리그 1호 완봉승이자 KIA 외국인 투수로는 2016년 헛터 노에시 이후 10년 만에 나온 정규이닝 완봉승이다.

올리는 시즌 4승과 평균자책점 0.81로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며 리그 정상급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닝당 출루허용(WHIP·0.81)과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부문에서도 공동 2위(4회)를 달리며 원투펀치의 한 축을 확실히 책임지고 있다.

특히 올리는 올 시즌 팀을 연패에서 구해내는 구세주로 떠올랐다. 팀의 3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올리는 지난 3월 31일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페투로 개막 2연패를 당한 팀에게 시즌 첫 승리를 선사했다.

이어 4월 5일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해 팀의 4연패를 끊었다. 24일 역시 5연패 중이던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보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아이언즈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 KIA 카스트로, 허벅지 부상으로 전력 이탈 햄스트링 부분 손상...오선우 대체 콜업

KIA타이거즈 외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사진)가 허벅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KIA는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아이언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카스트로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오선우를 콜업했다.

앞서 지난 25일 롯데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1루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던 카스트로는 수비 과정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 이날 경기에서 교체됐다. 이후 검진 결과 햄스트링 부분 손상 소견을 받았다.

올 시즌 KIA의 새 외인 타자로 합류한 카스트로는 23경기에서 88타수 22안타 2홈런 16타점 타율 0.250 OPS(출루율+장타율) 0.700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병호 감독은 "카스트로가 햄스트링 부분 손상 소견을 받았다. 전날 수비 과정에서 공을 받다가 부상을 당한 것 같다"면서 "월요일(27일) 체크를 한번 더 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활과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재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의 빈자리는 오선우가 대체한다.

지난 시즌 124경기 437타수 116안타 18홈런 56타점 타율 0.265로 코리어 하이를 작성한 오선우는 올 시즌 개막 후 6경기에서 타율 0.111로 부진하며 2군으로 내려갔다.

이병호 감독은 오선우에 대해 "(본인이) 지난해 좋았던 모습을 올해도 이어나가려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쫓긴 것 같다고 했다. 실력적인 문제보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군에서 경험을 쌓았던 선수인 만큼, 카스트로 정도의 에버리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 지난해의 성적을 믿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 KIA, 주말 롯데 3연전 위닝시리즈 마감 주말 3차전서 5-5 무승부...박재현, 데뷔 첫 홈런 폭발

KIA타이거즈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위닝시리즈로 마감했다.

KIA는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아이언즈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5-5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25일 4-3 승, 24일 4-0 승을 거뒀던 KIA는 이로써 롯데전 위닝시리즈를 따냈다. 그 결과 12승 1무 12패 승률 0.500을 기록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김도형

(중견수)-김선빈(지명타자)-김도영(3루수)-나성범(우익수)-데일(2루수)-오선우(1루수)-주호상(포수)-박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황동하가 나섰다. 총 70개의 공을 던진 그는 4이닝 5피안타 1사구 3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KIA는 1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박재현은 상대 3구째 143km 직구를

그대로 건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2025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KIA 입단한 박재현의 개인 첫 홈런이다. 특히 데뷔 첫 홈런이 리드오프 홈런인 경우는 구단 최초다. KBO 전체로 살펴보면 11호 기록이다. 2회말 1점을 추가한 뒤에는 4회초와 5회초 각각 2실점을 하면서 2-4로 역전을 허용했다.

KIA는 7회말 1점을 따낸 데 이어 9회말에도 1득점을 추가하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11회말까지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5-5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막...광주·전남 '맹활약'

**광주, 족구 단체전 우승...5개 종목서 종합 3위 달성  
전남, 다연패·다관왕 배출...금 17·은 24·동 24 획득**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26일 경남 김해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대축전은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이라는 구호 아래 김해종합운동장 등 62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축전은 검도, 게이트볼, 골프, 그라운드골프 등 41개 정식종목으로 치러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해 종별(12세·15세·18세 이하부·대학부·일반부 등 5개)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특히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54명도 축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참가했다.

광주는 이번 대축전에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 700명의 동호인 선수단을 파견했

다. 이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0개 등 총 5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특히 검도와 야구, 족구, 줄넘기, 축구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고른 경쟁력을 보였다. 족구 단체전에서는 남자일반부(60세 이상)와 여성부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개인 종목에서도 활약이 이어졌다. 사이클 도로독주 44세 이하부 천경영, 빙상 남자 15세 이하부 박준우, 육상 여자일반부 유미정 등을 비롯해 10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입증했다.

대축전 개회식에서 선수단은 2028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홍보했다. 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영배 부회장을 비롯한 시체육회 임원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광주선수단을 격려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에서는 35개 종목에 1083명이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4개 등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다연패와 다관왕도 쏟아졌다. 육상 포환던지기 오이순씨는 74세 이하부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남편 김성봉씨도 남자 79세 이하부 높이뛰기 금메달과 포환던지기 은메달을 추가하며 부부 메달리스트로 눈길을 끌었다. 오만평 전남도체육회 이사 역시 포환던지기 64세 이하부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

수영의 모리 하루키씨는 여자 30대부 자유형 50m에서 2연패에 성공했고, 사이클 백은주씨는 여자 40대부 도로독주와 크리테리움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다.

단체 종목에서도 성과가 빛났다. 축구 남자 50대부 11인제와 소프트테니스 남자 어르신부 70대부가 정상에 올랐고, 그라운드골프 남녀 일반부 역시 74세 이하부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종목별 종합 성적에서는 사이클과 씨름이 종합 2위, 그라운드골프와 스마가 종합 3위에 오르며 전남 생활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광주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 권순우, 광주오픈 새역사...한국 선수 첫 단식 우승

**결승서 홈그렌 2-0 제압  
통산 5번째 챌린저 제패**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350위)가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6에서 새역사를 작성했다. 한국 선수 최초로 광주오픈 단식 정상에 오른 것.

권순우는 2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코र्ट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에서 어거스트 홈그렌(28·덴마크·185위)을 2-0(6-4, 7-5)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은 권순우의 통산 15번째 국제대회 우승이자 5번째 ATP 챌린저 타이틀이다. 2019년 요코하마 챌린저를 시작으로 서울오픈, 2021년 비엘라 챌린저, 올해 판티엣 챌린저에 이어 광주오픈까지 제패하며 건재를 입증했다.

특히 2016년 창설된 광주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단식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선수 단식 최고 성적은 2018년 남지성의 준우승이었다. 권순우가 마침내 '무관의 벽'을 허물었다.

우승 과정도 인상적이었다. 32강에서 이로써 권순우는 지난 3월 일본 요카이치 챌린저에 이어 홈그렌을 다시 꺾으며 상대전적 2전 전승 우위를 이어갔다.



권순우(가운데)가 2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주원호 대한테니스협회장(오른쪽),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테니스협회

파했고, 8강에서는 '코리아안 데비'에서 정현(29·김포시청)을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쉬위슈오(대만·218위)를 돌려세우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

결승전 역시 집중력이 빛났다. 1세트 6-4로 선취한 권순우는 2세트 4-5 위기에서 세트포인트를 막아낸 뒤 흐름을 뒤집었고, 결정적 브레이크 이후 마지막 서브 게임을 지켜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지난 3월 일본 요카이치 챌린저에 이어 홈그렌을 다시 꺾으며 상대전적 2전 전승 우위를 이어갔다.

이번 우승으로 권순우는 라이브 랭킹 248위까지 상승, 2024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200위권 복귀를 확정했다. 앞으로 추가 랭킹 포인트 확보 시 6월 월별던 예선 출전 또한 가능하다.

권순우는 "톱100, 톱50을 넘어 톱10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식에서는 맥키가-러스스타터(이상 미국) 조가 아나투드 찬드라세카르(인도)-유즈키 다케루(일본) 조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